

구례군,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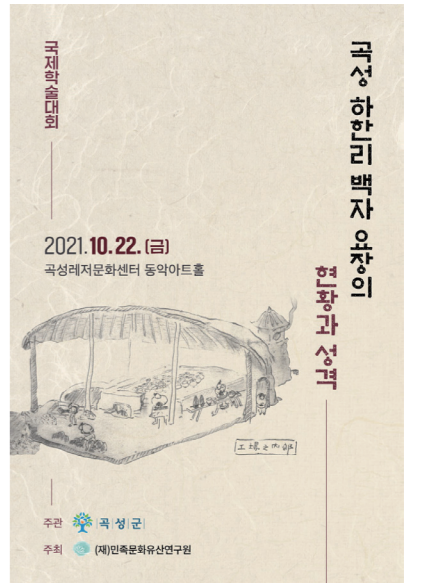
29개 지자체 참여 25893명 관람객 방문 '호황' 4일간 도시민 대상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 제공

구례군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 참가했다. '2021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는 7개 지역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와 동시에 진행되어 불거리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했다. 이번 귀농귀촌 행복박람회는 29개 지자체가 참여, 4일간 25,893명의 관람객이 박람회를 방문하여 코로나에

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루었다. 박람회는 거리두기 간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구례군은 지역방문이 어려운 도시민 대상으로 구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과 다양한 가공식품을 홍보했다. 도시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구례정착 보급자리 등 특화된 귀농귀촌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은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귀농귀촌인들이 구례군으로 전입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향후 11월 초 전라남도에서 주최하는 전남 귀농귀촌 온라인박람회에 참여해 귀농귀촌 상담 및 전문관을 운영하여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22일 하한리 백자요장 비대면 국제학술대회 개최

곡성군이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 레저문화센터에서 즉곡면 하한리의 근대 백자요장 비대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즉곡면 하한리의 근대 백자요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곡성 하한리 백자요장은 가마터가 매우 잘 남아 있고, 이에 대한 기록 또한 매우 상세하게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근대요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 받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곡성군은 하한리 근대 백자요장의 이같은 현황과 가치를 밝히고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열게 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연구자와 토론회가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발표표제는 ▲곡성 하한리 요장의 역사적 배경, ▲곡성 하한리 요장의 현황과 의의, ▲곡성의 요장과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子], ▲곡성의 요장과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근대 도자사에서 곡성 하한리 요장의 의의, ▲곡성 하한리 요장의 문화재 지정 추진 방안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곡성군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하한리 백자요장의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에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술대회를 통해 나온 내용들을 근대 백자요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 준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근대 백자요장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안전한 담양 만들기 군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31일까지 핵심·위험시설 위주 민·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담양군은 오는 31일까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노후 위험한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안전예방활동이며, 점검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담양군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출렁다리, 공공체육시설 등 19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 후 정밀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추

진한다. 또한 주요 점검대상 시설물 외에도 관리 주체인 군민이 스스로 점검하고 내 집, 내 점포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더욱 안전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천연염색재단, 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수상작 31일까지 전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강인규)은 오는 31일까지 나주시 다시면에 위치한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천연염색 문화상품대전 수상작'을 전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천연염색 문화상품대전은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나주시 후원으로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천연염색 문화상품 공모전이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아름다운 우리 한글'이라는 주제로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받아 심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김명숙 작가의 '길'(작품명)을 비롯해 금상(전라남도지사상)을 차지한 강덕리·이미숙 작가의 공동작품 '달, 한글을 품다', 은상(나주시장상) 수상자인 이영희 작가의 '탄생'과 김연화 작가의 '외출' 등 21개 작품을 선보인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 올해 공공비축미 5142톤 매입

장성군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한다. 총 매입규모는 5142톤이다. 산물벼는 지난해보다 144톤 증가한 1444톤, 건조벼는 68톤 늘어난 3698톤을 매입한다. 매입품종은 조명1호와 새청무로,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쌀을 출하

한 농가는 추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산물벼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성통합RPC(진원면)에서 매입한다. 건조벼 매입은 10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정된 51개소의 양곡창고에서 진행된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농촌 여성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핸드드립 전문가반 '수강생 전제' 자격증 취득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 핸드드립 전문가반 수강생 15명 모두 핸드드립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8월부터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농촌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핸드드립 전문가반 교육을 운영했다. 수강생들은 핸드드립 커피의 이해, 맛의 변화 등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길렀다. 한 수강생은 "핸드드립을 배우면서 원두마다 다른 향과 맛을 느껴보고 숙련도에 따라 맛이 변한다는 것도 알게 돼 유익했다"며 "농사일 중간중간 삶의 활력소가 됐다"고 만족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강생 모두 자격증을 취득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